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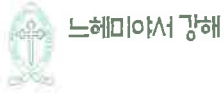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중간 지도자 느헤미야(II)

(느헤미야 2장 9 - 20절)

성경비평학자들 가운데는 느헤미야서가 너무 영적이고 비실제적인 책이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견해는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의 말입니다. 느헤미야서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교리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본 강해에서는 지도자로서 아래 사람들과의 관계,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여준 그의 태도를 통해 지도자의 참 모습을 찾아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외적 동기와 내적 수단 사이를 구분하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적 동기는 사용치 않고 내적 수단만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17절). 느헤미야의 호소는 그들의 고상한 본능과 애국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을 해야 할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관심은 열심으로 이길 수 있고 열심은 고상한 이상과 지적인 계획에 의해 생기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무관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자신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어 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2) 시간 조정을 잘했다

느헤미야에게는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절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성에 도착한 3일을 적절하게 사용했고, 4일째 자기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기회가 지나가 버릴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 그가 입을 열 때 백성들은 호기심에 차 있었다. 그때 그는 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왔는지를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3) 느헤미야의 계획 발표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7절).

유대인, 제사장들, 귀인들, 방백들은 그 누구도 느헤미야의 말을 오히려 거를이 없었습니다(16절). 너무도 큰 도전이

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 그 과업을 그들과 함께 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17절)

느헤미야는 자신을 백성들과 동일시했습니다.

(5) 피, 고통, 눈물 그리고 땀을 지불했다

외적 동기와 내적 수단 사이를 구분하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적 동기는 사용치 않고 내적 수단만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17절). 느헤미야의 호소는 그들의 고상한 본능과 애국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6) 백성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갖게 했다

느헤미야는 일의 진전에 대해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의 이면에서 일하심을 알렸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18절). 이것은 지도자가 백성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일을 했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궁을 나올 때 왕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그와 함께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왕 중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의 용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느헤미야가 풀어야 할 과제들

느헤미야는 슬한 도전과 역경을 견디고 이긴 지도자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여 드디어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 부여된 과제가 너무 큰 부담이 되었다

당시 성의 크기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성의 둘레가 1.5 내지 2.5 마일로 추정됩니다. 파괴된 부분은 컷고 돌을 쌓아 재건된 부분 역시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부여에 동원되는 많은 인원과 다양한 기술자 특히 무거운 돌을 올리고 쌓는 어려운 작업등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2) 실패한 역사가 있었다

성을 재건하기 위한 엄청난 부담도 있었지만 실은 지난 날의 실패한 역사가 느헤미야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주전 538년 고레스 왕 2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즉 93년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성전 재건을 먼저 했습니다. 가볍고 쉬운 과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을 증축하던 중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닥사스다 왕은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13년 전 왕이 중단시킨 공사를 다시 시작 한다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주변 국가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3) 일을 저지하려는 무리들이 있었다

느헤미야는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경험과에 속한 이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철저한 계획을 제시함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과중한 부담 그 자체가 위대한 지도자에게겐 기회였습니다.

2.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

(1) 느헤미야는 위대한 계획가였다

느헤미야는 정보 수집을 철저히 했습니다. 잠든 도시의 성벽을 조사하기 위해 밤중에 짐승을 타고 다른 두 사람과 직접 순찰을 했습니다(12절).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도착을 아무도 모르게 한 것부터가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도착 3일 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성의 재건을 위한 계획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만 전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얻은 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불가능한 계획을 만들기보다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하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특집

세계를 교구 삼고 땅 끝

유년부 · 초등부

어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시급한 복음

김찬진 권사(초등부 부감)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지식의 9/10를 흡수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들이 세상의 문화들로 점령당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복음이 시급히 전해져야 할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시절임을 알 수 없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던 짧은 기간 동안 받은 신앙교육이 40년 가까이 애굽왕궁에서 생활한 것보다 모세의 삶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 애굽의 왕족보다 히브리 민족을 더 사랑한 점을 보더라도 어린이들의 전도가 시급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이, 불교가, 원불교가 먼저 점령해 버린다. 생명이 없는 이들도 생



▶ 수요일 노방전도를 하는 유년부 교사들

명 절고 아이들을 공략한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 '내가 하면 무엇을 얼마나 하겠는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도망간 요나를 부르셔서 회개하라고 짧게 외친 소리에 니느웨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생각하면 주신 사명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 유년·초등부 선생님들에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놀이터로 학교 앞으로 복음을 들려주려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추운 겨울에도 또 비가와도 우산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유년·초등부 선생님들이 자랑스럽다.

몸이 피곤해도 달려와서 함께 전도를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 때로는 자신들의 지갑을 열어 간식을 제공하기도 하며, 많은 반 어린이들이 친구 전도하면 문화상품권을 주면서 격려도 하고 유니폼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미래에는 모세

같은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굶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드린다.

더더구나 처음으로 초등부에 전도특별반을 신설하고 땅 끝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자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에 전도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상반기 좋은 보고를 올리기 위해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다.

서울의 어린 영혼들이 약 1,784,000명이라고 한다. 그 중 서울교회 주변에 있는 대곡초등학교 1,700명, 대치초등학교 1,800명, 대현초등학교 1,000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유년부와 초등부는 매주일 전도하고 있다. 특히 초등부는 이번 5월 어린이 주일을 중심으로 총동원 주일을 계획하고 어린이 임원단과 학부모 임원단들도 앞장서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소원하며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중등부

자리가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1부 예배가 끝난 오전 10시, 501호 중등부실에 가보면 복도를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의자가 눈에 들어온다. 공과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중등부실 안에 다 앉을 수 없어 복도에까지 의자를 놓고 성경공부를 한다. 요즘은 복도도 모자라 교사실과 교구 간사실까지 빌려 쓰고 있다. 넘쳐나는 학생수에 맞춰 지하실에 있던 여분의 의자들을 가져올 때는 교사들끼리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한다.

"매 주일 501호에서 맞이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정말로 달라지고 있어요. 교사인 저희들도 덩달아 감사가 넘칩니다." 중등부 부장인 이태원 집사의 말이다. 중등부 학생 수는 매달 340명이 새로 등록하면서 이대로라면 당초 목표였던 수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4월 첫째 주엔 목표 달성을 기념해 감사 잔치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종용 담임목사는 학생들에게 '신력(믿음), 지력, 체력' 3가지를 키우라는 메시지와 함께 '교회학교 학생만 명' 달성을 위해 중등부가 앞장서서 '출석학생 천 명'이라는 비전을 놓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중등부의 부흥에 특별한 좌절은 없었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보이지 않는 세미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새로 온 교사들의 헌신이었다. 주중에 만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꾸준한 전화심방, 공과공부 시간의 열렬한 가르침 등이 알게 모르게 교사들 간에 영적 도전이 됐다. 또한 가지는 새 친구들이 교회학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들 간에 이른바 '마니포리는 영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기존 학생들과 새 친구들 간 기도 짝을 맺어주고 친구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도록 했다.

교육열이 높은 강남지역의 특성상, 시험기간 중 교회학교 출석률 하락은 현재 각 교회마다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등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학부초 초청의 시간을 마련한다. 이미 지난 1월 있었던 학부초 초청 시간에 당초 예상치보다 2배 가까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윤영국 목사님과 김시환, 고성숙 부감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이 헌사같은 학생들과 함께 중등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먼 훗날 서울교회 교회학교 학생 만 명의 놀라운 부흥이 중등부의 변모에서 비롯됐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부흥의 행진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김민철 (편집부)

고등부

학원을 정복하라!

박광일 전도사(고등부)

날씨도 화창해 아름다운 꽃들이 저마다 향기를 풍기는 휘문고등학교 등나무아래서는 수요일(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교회 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학원 모임이 '학원을 정복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고사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매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학원별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곤 합니다. 휘문고등학교의 학원장인 2학년 최근우 학생의 인도로 진행된 학원별 모임은 주일마다 고등부에서 배포되는 학원모임순서지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새 친구소개로부터 시작되어 찬양과 말씀, 그리고 서로의 기도제목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간단한 예배를 드린 학생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은혜롭게 가졌습니다.

매 주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되는 고등부 학원별 모임은 학원폭력과 수능시험부정행위, 교실붕괴 등 여러 가지 부정과 도덕적 타락으로 그 본질을 상실한 우리의 학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20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학교별로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부 학생들의 학원별 모임은 휘문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은광여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 여러 학교들에서 매 주마다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진행하는 학원별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선교

캄보디아, 저 산지를 주소세



5월 초 캄보디아로 떠나는 이재를 선교사님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있는 동안 선교사의 길을 가기 위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한 후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여 현재 선교협력위원회 동아시아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76년, 생도 시절 예수님을 영접한 이 선교사님은 가정 전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내와 두 아들까지 가족 중 4명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동문이다.



▶ 척박한 캄보디아 전경

특별히 군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떠나는 이 선교사님은 그 곳 MCF(기독교인연합회)와 협력하며 캄보디아 군 복음화를 활성화하는 사역을 할 계획이다. MCF는 English 캠프, 의료지원, 컴퓨터 교육 등으로 캄보디아 군인들과 접촉점을 가지게 되며 이 선교사님은 이번 8월에 군부대에서 열리는 English 캠프에 참여했다가 9월에 귀국하여 11월 27일(주) 우리 교회에서 파송식을 갖은 후 다시 출국하게 된다.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한때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지배했던 강력한 크메르 제국의 계승자이다. 당시 제국의 영화는 전설적인 앙코르 사원의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민 대부분이 크메르족이고 불교는 15세기 이후 이 나라의 국교가 되었다.

수세기 동안 캄보디아는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었다.

도처에 있는 사원,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불교 정책, 근래에 와서는 20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중우가 많은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경제는 최악이어서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

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 내에 기독교는 1970년대 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크메르족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정권을 장악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교회성장은 괄목할 만 한 것이었다. 1990년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공개적인 예배가 허용되고 있던 하나 아직도 캄보디아에서 기독교인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 최근 제한된 종교의 자유가 다시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크메르족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함께 사역자로 떠나는 박병진 사모님은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지 군인 가정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된다.

교회는 이재를, 박병진 선교사에 이어 계속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할 계획이다. 성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후원과 뜨거운 기도 바란다. (편집부)

단기선교

나의 삶을 변화시킨 단기선교

유수진(대학부)

2002년 봄, 우리 서울 교회에서 제1회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광고를 듣고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한 지체가 단기선교를 가라고 신청서에 내 이름을 적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가고 싶단 안 가고 싶단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했던 일에 내가 어찌다가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뱃속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앙마이에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뱃속 깊이 체험했고 그와 동시에 사탄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영적전쟁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입에서 절로 나왔고, 비를 맞으면서도 현지인들과 함께 뛰면서 찬양하고,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까지 치앙마이 대학에서 전도를 하고,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도 전혀 영향 받지 않을 정도로 나의 기쁨은 상위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때의 은혜와 감사로 나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왔고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엔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설교 시간이 설렘 정도로 기다려졌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기쁨을 못 잊어서 작년에 방글라데시 단기선교에 가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깊게 체험하고 왔습니다.

대학부에 오자마자 신앙이 깊은 많은 선배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깊은 신앙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나는 그에 따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먼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그 때 태국단기선교 사로서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땠는지 가끔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작은 결정과 헌신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고 그 어떤 말로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기선교팀의 사역과 헌신을 위해 본명과 지역 명을 밝히지 않는다.

세계선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저는 사람이 뇌와 손과 발로 일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랑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키가 크고 잘 생긴 전도사님은 이야기 내내 자랑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동아시아에서 태어나 한 국말과 현지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우리 교포는 물론 동 아시아에 큰 복음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 느껴졌다. 어려서부터 예배당이 있는 마을에 살아서 큰 어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고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며 지금까지 온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지식이 본토 같이 여겨져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이 헛공부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경 말씀에 깊이 몰입하게 되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상사의 갈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상사를 용서하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내 죄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기도의 불이 들어 일주일 10 여 번을 교회에 참석해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왔다. 교향에서 경제적 지식적으로 집안이 상류생활을 했던 전도사님은 겸손하지 못했던 자신을 회개한 후 사람들에게 마음에 문을 조금씩 열며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 여년의 신학을 공부 하였다. 다시 동아시아에 서울교회가 세운 신학대에서 3년의 공부를 한 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전도사님은 동아시아에 세워진 신학교의 1기라는 자부심도 대단했다. 현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서 ThM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며 이 공부가 끝나는 2년 후에는 다시 교향으로 돌아가 신학을 가르칠 계획과 자국인들에게 가교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의사이며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하시는 남편의 적극적인 의조에 힘입어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는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를 전하며 늘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고 덧붙이셨다. 하나님이 불러 동아시아 복음 전파에 크게 쓰실 것을 바라보며 많이 느끼고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며 크게 쓰이는 전도사님이 되기를 늘 기도한다고 하셨다.

유명희(편집부)

※ 전도사님의 사역과 선별을 위해 본명과 지역 명을 밝히지 않는다.

전도 특집

세계선교대학 **부활의 증인!**

이주현(청년부)

지난 4월 14일 개강한 세계선교대학에서는 많은 청년들의 참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전체 참석 수에 비한다면 청년들의 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세계선교대학에 참석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발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요4:35)”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청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여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제사장 나라이며 우리를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젊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때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의 청년들을 부흥의 세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을 부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작년부터 대학부에서는 여러 어학 카페들이 개설되어 운영되어왔습니다. 영어카페를 시작으로 중국어카페와 일어카페가 개설되고, 많은 지체들이 영어, 중국어, 일어를 배우며 그 언어로 성경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카페에서는 작년부터 단기선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우리 교회의 “동아시아 단기선교”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올해 올라온 지체들을 통하여 청년부에도 이번 “동아시아 단기선교”에 대한 불길이 퍼져 이번엔 스무 명이 넘는 청년들이 단기선교에 지원하였고 또한 세계선교대학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선교’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2005년 서울교회 ‘동아시아 단기선교’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선교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고 개념조차 없었던 우리들을 ‘세계선교대학’을 통하여 준비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모두-서울교회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9기 찬양대양성반 개강

1시30분 601호실에서 찬양대양성반 제9기 과정이 개강된다.

유아부 봄소풍

· 일시: 4월 30일(토) 10시 - 15시 · 장소: 현인릉
· 대상: 유아부, 유치부 부모님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7학기 목회자 세미나 · 16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오도록
4.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5. 공의와 공평이 강물같이 흐르는 국가 사회가 되도록

중보기도팀

전도하는 여러분 뒤에 기도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이정연 권사(12교구)

저희 중보기도팀은 전도학교 8기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도교육을 받은 기간이 추운 겨울이었으며 유난히도 권사님들이 많이 참석케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매주 목요일 마다 축호전도를 나가 현장에서의 전도활동 시간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이며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권사님들께서는 전도해야 한다는 불타는 사명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역시 마음과는 달리 실전에 나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큰 힘이 됨을 익히 알기에 중보기도의 동역자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큰 힘을 들지 않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축호전도대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저희 중보기도대원들은 목요축호전도대원들이 올리는 기도명단을 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며 각 조장들과 대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 미용선교회

사랑의 손끝으로 봉사하는 이 · 미용선교회



▶ 2004년 방글라데시에서의 봉사

전순송 권사(12교구)

우리교회는 2002년 11월15일 이미용 선교교회를 발족하여 세 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과 둘째 주 화요일, 오전 9시 교회를 출발하여 전철과 버스로 봉천동에 위치한 동명치매노인복지관과 송파치매노인복지관, 파천에 위치한 빛과 사랑 장애인 선교회 세 곳에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8월이면 농촌전도대와 단기선교에도 동참하여 봉사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복지관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하는 일은 때때로 힘이 듭니다. 머리 깎기 싫다고 떼시는 분, 머리를 흔들고 침 뱉고 때리고 손을 잡고 머리를 붙잡고 한참동안 씨름을 해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주실 때 열심히 봉사해야지라고 저희

문전박대를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이 많았지만 이제 차도 대접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 속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격하며 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목요일 10시30분부터 606호실에서 2시간동안 지혜영 전도사님의 인도아래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이제는 교회 전체 70인 전도대에 소속되어있는 각 팀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환자 명단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함임을 보며, 들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서울교회 70인전도대에 소속되어있는 많은 전도활동 속에 큰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서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함을 알기에 어떤 중요한 일도 뒤로 미룬 채 이 시간을 사모하며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들은 다짐을 하곤 합니다.

또한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선교회에 나가, 두 손과 두 다리가 없는 원장과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목사님과 20여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그분들의 머리를 손질해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용 봉사를 3년여 동안 하면서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저희들과 함께 봉사하실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7일(수) CTS(기독교TV)채널인도를 한다. 28일(목) 복음신앙동지회를 소집한다.
- 이사: 윤용근 남육권 집사(6교구) 송파구 마천동 279-25, 449-3099 김경희 여영림 집사(5교구) 동작구 사당5동 187 선인아트빌
- 주간식당 봉사: 도르가 여전도회(4월24일) 푸디아 여전도회(5월1일)
- 금주의 식사: 김영연 권사와 가족일동(양재동 은혜 쉼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30분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20분
	3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열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1부 오전 11시
	예 배 2부 오후 7시
금 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